

2020년 12월 23일

## 지속가능성 목표치 설정한 국내기업 크게 증가 HSBC 글로벌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올해, 사회, 환경 부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치를 설정한 국내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SBC 글로벌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ESG 부문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한 국내 기업은 26%-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목표를 설정한 기업도 19%-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문별, 시기별로 비율이 다양함). 이는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HSBC 네비게이터’는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무역 설문조사이다. 올해에는 국내 기업 350 곳 포함 전 세계 39개국 10,368개 기업이 참여 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코로나 이후 경기, 투자, 전략, 글로벌 무역, 공급망 재편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 설정 기업 증가세

국내기업의 80%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73%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46%는 지배구조 측정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9년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응답률은 각각 70%, 60%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에서는 22%(2019년 9%)가 에너지 사용, 19%(2019년 6%)가 원자재 구매, 18%(2019년 8%)는 재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사회분야에서는 38%(2019년 29%)가 상품 안전 및 품질을 측정한다고 응답했다.

거의 모든 국내기업(94%)이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객수요 증가(39%), 직원 복지 증진(36%), 기후변화 완화(31%), 지역사회 기여(28%), 투자유치를 통한 재정적 이익(28%), 브랜드 평판 개선(27%)을 꼽았다.

또한 국내기업 89%는 지속가능성에 더욱 주력하여 내년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2개월 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압박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소비자(35%), 업계 규제(35%), 정부(34%), 공급망(31%)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22년 말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익 회복 전망

국내기업 대부분(77%)은 2022년 말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설문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 전체, 즉, 글로벌 7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말쯤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8%(글로벌 13%)였고,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응답한 곳도 일부(4%, 글로벌 8%) 있었다.

기업의 성장, 수익 회복에 최대 위협으로 꼽힌 것은 코로나 재유행(54%, 글로벌 4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확실한 정치 환경(24%, 글로벌 25%),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23%, 글로벌 26%)가 있었다.

## 투자 우선순위는 현금흐름 관리, 미래 핵심 전략은 시장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국내기업이 내년에 즉시 투자할 분야는 현금흐름(54%, 글로벌 46%), 마케팅(46%, 글로벌 47%), 상품혁신(45%, 글로벌 46%), 판매 채널(44%, 글로벌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간 변화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1%, 글로벌 32%)과 비용절감(32%, 글로벌 32%)이 꼽혔으며, 미래에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에는 시장 변화/충격에 대한 회복력(50%, 글로벌 32%)과 혁신(37%, 글로벌 44%)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무역에 대한 엇갈린 전망

향후 1-2년간 글로벌 무역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의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45%) 동일했으며, 글로벌 (긍정적 72%, 부정적 22%)에 비해 국내기업이 현저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3-5년간 국내기업의 사업 확대에 가장 매력적인 지역에는 아태지역(49%)이 꼽혔으며, 시장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탄탄한 고객 수요(52%)와 새로운 공급업체·파트너에 대한 접근 용이성(52%)이 꼽혔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네비게이터는 국내외 기업의 경기 전망에 대한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HSBC는 선도적인 글로벌 무역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nds/more*

###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02-2004-0882

[hyonjinsuh@kr.hsbc.com](mailto:hyonjinsuh@kr.hsbc.com)

HSBC 네비게이터는 Kantar 가 HSBC 의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이다. 2020 년 9 월 11 일-10 월 7 일에 39 개국 10,368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유럽:**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태지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본토,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 **중동, 북아프리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 **아프리카 기타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세한 내용: <https://www.business.hsbc.com/navigator>

###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4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HSBC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5백 6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